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결핵방치(防治)사업

김대규 ■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연변이라는 곳

나는 8월 3일 김희진 북십자의원장과 함께 12시 중국북방항공편으로 김포를 출발하여 장춘(長春)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갈아타고 현지시간 오후 3시 40분 연길(延吉)에 도착했다.

출발시에는 호우와 북상하는 태풍으로 심한 악천후였으나 연길의 하늘은 맑게 개여 있었다.

연길은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주 정부 소재지로서 연변결핵병방치소와 연변방노협회가 이곳에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길림성(吉林省)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장백산맥(長白山脈)이 가로지르고 있다.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함경북도, 양강도와 접하고 있다. 자치주 전체 면적은 42,700 평방 킬로미터로서 그중 85%는 삼림지대에 속한다.

자치주 인구는 228만명이며 그중 약 86만명이 조선족이다. 현재 중국에는 약 200만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그중 43%가 연변자치주에 몰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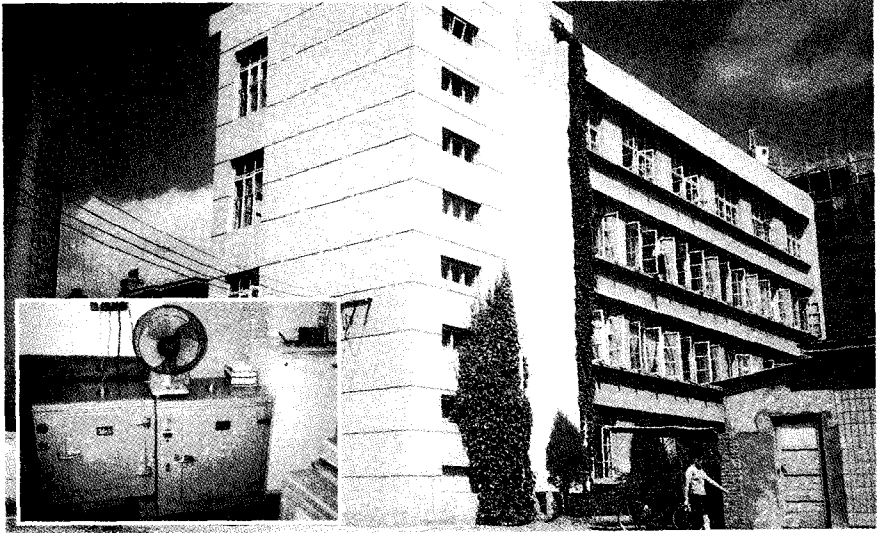
19세기 후반부터 우리 나라 농민들이 많이 이주하여 광활한 대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으며 동북지방의 벼농사도 조선족에 의해 시작되었다.

20세기 초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착취가 강화되자 더욱 많은 농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민족 집단을 형성하고 고유문화를 지키면서 동북개척의 주역으로 정착했다.

한편 항일지사들이 민족학교를 설립하여 항일계몽운동과 인재양성에 힘쓰고 풍찬노숙하며 봉오동, 청량리 전투등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빛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한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향락 문화와 배금사상에 점차 오염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농촌에 가면 아직 우리 농촌문화의 원형이 남아 있다.

연변자치주에서는 모든 간판은 한글이 먼저이고 다음에 한자를 꼭 병기하고 있으며 언어는 우리 나라 말과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문서는 전부 중국어를 쓴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결핵방치소 전경으로 연변방노협회도 이곳에 함께 있다 사진안은 방치소 검사실 내부 모습이다

고등학교까지는 모든 교육과정이 우리 나라 말로 되어 있고 대학은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일원화된 결핵관리 체계

백산호텔에 여장을 풀 우리는 다음날 아침 연변결핵병방치소를 방문했다. 방치소에서는 조선족 여직원들이 아름답게 한복을 입고 우리를 맞아주었다.

몇 달 전 새로 부임한 김덕복(金德福)소장, 최록산(崔錄山)부소장, 윤옥자(尹玉子)판공실 주임 등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후 소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연변방노협회 이사장인 전동길(全東吉) 전(前)소장도 동석했다.

방치소는 4층 건물로 1층은 진찰실,

엑스선실, 검사실, 초음파, 심전도실 등이 있고 2~3층은 입원실로 32개 병상이 있으며 4층은 소장실, 사무실 등이 있다. 입원실은 한 병실에 2~3명씩 있는데 거의 차 있었다. 평균 병상가동률은 87%이며 평균 입원기간은 46일로 작년 1년간 234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외래는 1일 10~15명정도로 그리 많지 않았으며 현재 등록환자는 1,050명이었다. 치료처방은 모든 결핵약제를 골고루 갖추고 6개월 단기치료를 하고 있으며 특히 투약은 DOTS(복약감시단기치료)원칙을 철저히 시행해서 치료율을 83.7%에서 98%로 향상시켰다 한다.

연변결핵방치소에는 의사 15명, 간호사 10명, 검사기사 4명 등 모두 45명의

직원이 있다.

연변의 결핵관리체계를 보면 주(州) 정부 위생국 아래 연변결핵병방치소가 있고 그 아래 행정단위인 연길(延吉), 용정(龍井), 화룡(和龍), 돈화(敦化), 도문(圖們), 훈춘 6개시(市)와 안도(安圖), 왕청(王淸)의 2개현(縣)마다 지역방치소가 있는데 연길시방치소는 연변방치소에 통합운영되고 있다.

연변결핵병방치소는 자치주의 결핵관리사업에서 업무지도와 정책수립 등을 결정 시행하는 핵심적 기구로서 결핵의 예방과 모든 결핵환자의 등록 및 관리치료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타 의료기관은 결핵환자를 관리치료할 수 없으며 제도적으로 발견된 모든 결핵환자는 방치소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연변방치소에는 서무과(판공실), 예방퇴치과, 의료질량과, 진찰부, 입원부, 의료기술과, 검사실이 있으며 일본에서 기증 받은 중고 이동엑스선 검진차가 한 대 있었다.

1997년부터는 국가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생에 대한 BCG 접종은 전면 중단하고 신생아에게만 BCG를 접종하여 98.3%의 접종률을 보였다.

지방결핵방치소의 역할

우리는 이날 오후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도문(圖們)시에 가서 그곳 결핵병방치소를 방문했다. 수년전 한국에 온 바 있는 장소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도문시의 인구는 14만명이고 그중 조선족은 60%이며 북한과의 사이에 두만강 위로 다리가 놓여 있어 인적, 물적 교류의 창구가 되고 있다. 도문시방치소는 규모가 작아 직원은 의사 2명을 포함해서 6명이었으며 입원실은 없고 외래환자만 하루 4~5명 관리치료를 한다고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건소에서 모든 결핵환자가 국비로 치료를 받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이곳에서는 모든 치료비는 자비부담이며 다만 가난한 환자에게만 국가에서 30%정도 치료비를 감면해 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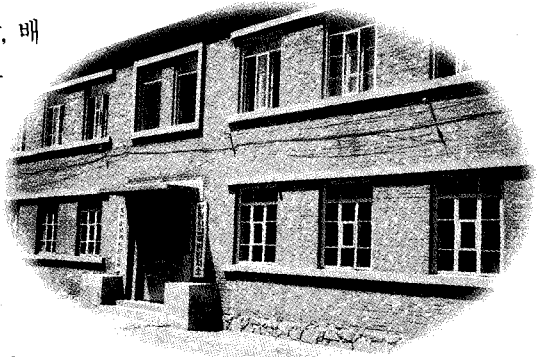
한달 치료비는 처음 2개월은 월 150원(환율 1원=150원)이나 보통 50원쯤 되는데 이곳 의사 월급이 1,000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적은 부담은 아니다.

도문시에서 연길시로 돌아가는 길은 두만강변을 따라 있는 비포장도로였는데 강넘어 북한의 마을과 사람들이 이따금 눈에 띄었다. 북한땅 산 중턱으로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라는 구호가 크게 시선을 끌었다.

6일에는 안도현(安圖縣)결핵방치소, 7일에는 용정(龍井)시 결핵방치소를 방문했는데 안도현방치소는 규모가 작았지만 용정시방치소는 10명의 직원이 있고 등록관리되고 있는 결핵환자는 213명이며 그중 도말검사 양성환자가 75명이라고 했다.

하루 외래환자는 10명 내외이며 엑스선촬영은 4~5명이라고 했다. 객담검사

는 다른 방치소와 마찬가지로 도맡, 배양검사와 내성검사까지 직접하고 있었다. 검사실의 시설은 부란기와 무균상자 등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었으나 노후되었고 결핵약제는 1321까지 국내생산품으로 모두 갖추고 있었다.



용정시 결핵병방치소 전경

항일투쟁의 본거지

용정(龍井)은 19세기 후반 조선 이주민에 의해 개척된 도시로서 북한 회령과도 육로로 연결되며 항일투쟁의 본산이었던 간도땅이다. 많은 조선인들이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래며 독립을 위하여 저항하고 투쟁한 본거지였다.

더욱이 민족시인 윤동주(尹東柱)가 태어나고 그가 다녔던 대성중학이 있으며 용문교 아래 유유히 흐르는 해관강과 비암산의 일송정은 “선구자”라는 명곡을 탄생시킨 배경이 된 곳이다. 또한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주인공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역시 용정이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민족혼과 한과 저항정신이 숨쉬는 도시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용정제일중학으로 바뀐 자리에 옛 대성중학 본관 건물이 복원되어 윤동주기념관으로 많은 방문객을 맞고 있었으며 그 앞에 세워진 시비에는 윤동주의 “서시”가 새겨져 있었다.

잃어버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다가 체포되어 광복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28세의 나이에 일본 후꾸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비운의 저항시인

윤동주의 시정신은 우리의 가슴에 “별헤는 밤”의 별처럼 영롱이 살아있다.

연변방노협회는 1979년 중국방노협회 길림성지부 소속으로 출발했으나 1990년 독립조직으로 되었으며 관행적으로 이사장은 방치소장이 맡고 이사진은 방치소 간부가 겸직하고 주소지도 방치소로 되어 있다. 다만 현재 이사장은 전동길 전소장이 맡고 있으나 곧 신입소장에게 인계한다는 것이었다.

학술활동과 정보교류가 주된 사업이며 지금까지 41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다.

연변의 결핵관리체계는 국가방침에 의하여 일원화되고 체계적으로 DOTS 원칙도 잘 지켜지고 있어 시스템 자체는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았다.

다만 노후된 장비를 개비하고 의료의 질이나 정도관리등 기술력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卍